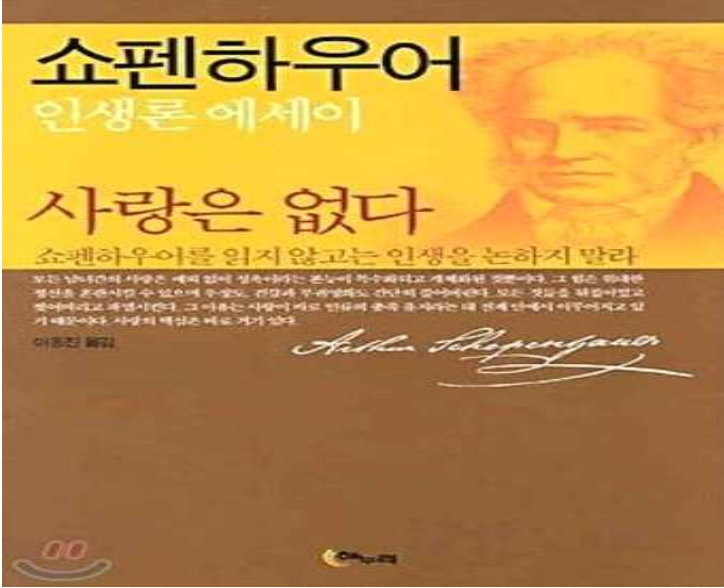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오름차순 (20212223)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4월 17일(수요일) / 장 소 : 브리콜라주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박*우	학번	2022****	이름	봉*경
	학번	2021****	이름	윤*준	학번	2022****	이름	현*민
	학번	2021****	이름	은*준	학번	2023****	이름	유*
	학번	2022****	이름	박*연				
참석인원	7명							
선정도서	사랑은 없다 - 쇼펜하우어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추천자 : 박*연</p> <p>책 "사랑은 없다"는 사랑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고찰을 담은 작품이다. 이 책은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사랑이 단순한 정신적 연결이 아니라 성욕의 발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종족 보존과 생존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연애의 본질에 대한 진</p>							

실을 논의한다. 이 책은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자극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사랑은 청춘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며, 이 책은 청춘들이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고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사랑은 성욕의 발현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박\*우

이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사랑은 오직 성욕의 발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더 깊고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형성을 포함한다. 물론 성욕은 사랑의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사랑은 보다 심층적이고 감정적인 연결을 요구한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상호 간의 지지와 헌신, 그리고 공감과 연민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욕이 사랑의 한 측면이 될 수 있지만, 사랑은 그 이상의 복합한 감정적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준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성욕에 지배를 받는다. 내재되어 있는 욕구가 마음의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준다. 사랑이 온전히 자신이 것이고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만들어진다면 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 왜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은\*준

사랑은 종족 번식을 위한 성욕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후손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자연의 지혜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사랑은 인간이 유전적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후손을 낳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종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한다.

박\*연

사랑을 하니까 성욕이 발현된다고 생각한다. 성욕이 발현돼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니까 손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진다.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유는 대화 코드가 잘 맞거나, 같이 있는 게 즐거워서 상대방이 더 좋아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 과정 후에 스킨십을 하고 싶어지고 더 깊은 관계를 원하게 돼 성관계를 하고 싶어진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욕구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 정신적으로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육체적인 사랑을 원하게 되는 것 같다. 육체적인 것만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다. 정신적 교감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현\*민

동의하지 않는다. 사랑의 원인을 설명하기에 성욕이 일차원적이지만 가장 간편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대 양성이라는 본능적 욕구에 따른 감정 이외에도 가족 간의 사랑, 깊은 우정을 설명하기 위한 사랑 등 사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욕의 발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봉\*경

사랑은 성욕의 발현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남녀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단순 쾌락과 종족 유지의 본능이라는 맥락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 사랑과 성욕이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동물에 비해 짝을 고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우월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어서”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신적 사랑만이 존재하고 육체적 사랑이 없다면, 인류의 종족 유지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남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랑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장거리를 떠나 만나지 못하는 정도라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인 감정 사랑이 본능적인 성적 욕구의 결과물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이다.

유\*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성욕이 사랑하는 사람과 발현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주장과 같이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사랑이 발현된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사랑을 하면 성욕이 발현될 수 있다는 충분조건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필요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랑이라는 관계는 그저 성욕을 넘어서 서로를 아끼고 정서적으로 안정과 동일시되고 싶은 감정이 든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스킨십과 성욕이 발현될 수 있으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자기에게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는 본능에 의해 이성을 선택하게 된다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박\*우

이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는 본능이 이성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결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나 연애는 보다 깊고 다층적인 이유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관계도 있다. 또한 사랑이나 애정도 이성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는 본능이 이성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해당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준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현실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대다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성에게 끌릴 때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보다 나와 비슷하다 느껴지는 동질감에서 더욱 이끌림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은\*준

사람들이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는 본능에 따라 이성을 선택하는 것에 동의한다. 돈이 없다면 돈 많은 이성에게 끌리게 된다. 결국, 인간에게 사랑은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연

동의하지 않는다.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조건으로 이성을 선택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키 큰 여자는 키 큰 남자에게 별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반례가 있다고 본다. 나는 키 큰 남자를 보며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다. 나의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기보단 오히려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이 끌린다. 왜냐하면 결이 비슷하면 이성과 대화를 할 때 잘 맞을 것이고 이는 대화의 즐거움, 관계의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성을 선택한 적이 없다.

현\*민

동의한다. 경험적으로 내게 부족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크게 끌렸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각자의 강점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교제 기간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일찍 일어나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던 시기에 만났던 사람은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해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휴일에도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술과 담배 등 자신에게 해가 될만한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았다. 여러 일이 겹쳐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바빴던 시기에 만났던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커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살뜰히 챙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모든 것에서의 반대를 찾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쇼펜하우어는 후대를 위해 키 큰 여자는 키 작은 남자를, 키 큰 남자는 키 작은 여자를 좋아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돌연변이적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설명했지만, 큰 키를 장점으로 생각하는 내가 과거 키 작은 남자와 교제할 때는 작은 키가 사랑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같은 특기를 가지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의 편안한 사랑도,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정반대의 사람과 함께 발전하는 사랑도 좋지만, 이는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봉\*경

위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의 부족한 면을 포용해 주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린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인에게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는 본능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통해 이성을 찾거나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종족 유지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유전자를 물려주고자 할 것이다.

유\*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나의 경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호감이 생긴다. 그러나 먼저 외적인 취향이 내 기준과 부합해야 결핍된 부분에 대한 시선도 생기는 것 같다.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 면을 보면서 정립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의 기준을 보고 맞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면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이상형의 기준 중 하나인 것 같다.

### 3.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가?

박\*우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다양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일부는 로맨틱한 사랑을 원하며, 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데 중점을 둔 관계를 원한다. 그들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 어떤 청년들은 친구나 가족과의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존중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를 중시한다. 또한 자기 사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노력하며, 내적인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종종 청년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동시에 추구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는 삶을 꿈꾸고 있다.

윤\*준

나는 지금의 청년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살아가며 느끼기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이해를 늘려 가기보다 나의 생각을 관철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대화의 주를 이룬다.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과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준

청춘들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에 집중하고 온전히 사랑만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춘일 때 후회 없는 사랑을 해보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정할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다. 그렇기에 청춘들은 후회 없는 사랑을 추구한다.

박\*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랑과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 현대의 청춘들은 이타적인 관계보단 이기적인 관계가 더 많다고 느낀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기적인 관계가 많은 현대에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이 비로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있을 때 편안하고 마음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배려하며 맞춰갈 수 있는, 또한 연애를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현\*민

현대 청춘의 사랑 방식은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도파민 과다 분비를 유발하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드라마틱한 연애를 위한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회-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대비해 안정적인 사랑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또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성 정체성에 솔직해지며 사회와 맞서려는 사람도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봉\*경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자신을 좀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사랑을 하는 것 같다. 물론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사랑은 때로 양보가 필요로 하다. 나를 생각하는 만큼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랑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것에 있어 청년들이 비로소 함께 어울리는 다정한 세상을 지향했으면 한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의 청년들인 만큼 내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남보다 너무 나만 사랑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유\*

이해와 연대 그리고 배움이라는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무언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순 없지만 사랑을 통해 우리는 나를 알아가고 상대방을 알아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사랑을 통해 우리는 배워가고 더욱 성숙해지는 것 같다. 결국 그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전의 사랑에 있었던 여러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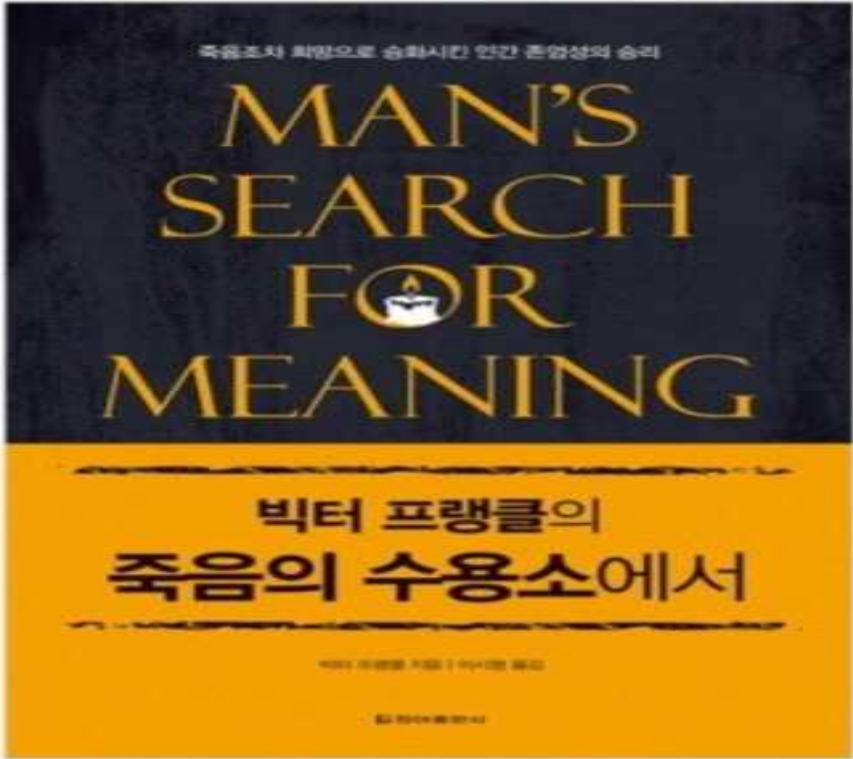
2024년 4월 17일

참가자대표 : 박\*우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오름차순 (20212223)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5월 1일(수요일) / 장 소 : 사회학과 세미나실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박*우	학번	2022****	이름	봉*경
	학번	2021****	이름	윤*준	학번	2022****	이름	현*민
	학번	2021****	이름	은*준	학번	2023****	이름	유*
	학번	2022****	이름	박*연				
참석인원	7명							
선정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 빅터 프랭클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추천자 : 박*우</p>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유대인 학자 빅터 프랭클이 나치의 수용소 생활을 담담하게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내면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찰을 제시한다. 특히 니체의 철학과 삶의 의미에 대한 고찰은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니체의 철학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과 무의미함에 대항하여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에 맞물려 있는지를 묘사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좋은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영감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다.

### 1. 목표를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는 이 책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박\*우

개인적으로,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다.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마치 방향하는 배 같은 느낌이 든다. 삶이 단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이 몰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목표가 있을 때에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낀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오는 만족과 보람은 삶을 매우 풍족하게 만들어주었다. 따라서 목표를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는 이 책의 주장에 동의한다. 목표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지를 강화시키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윤\*준

인간은 누구에게나 '신경 쓸 거리'가 필요하다. 이 세계가 나에게 전혀 의미 없고 목표가 없다면 신경 쓸 거리가 없다는 말과 같다. 그런 사람의 내면에는 허무한 고통만이 가득할 것이다. 목표가 존재해야 의미가 생기고 그런 의미가 삶의 지독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해결책이 된다.

은\*준

사람들은 흔히 목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무의식중에 목표는 개개인마다 하나둘씩 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벌면 돈이 많아지는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기에 목표를 잃는다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박\*연

학교를 다니면서도 졸업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한다. 죽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살아가는데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현재를 열심히 살고 싶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학업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있다. 학기 중에는 방학이 너무 기다려지지만 막상 방학을 하면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졌다. 학교를 다니며 좋은 학점을 받고 싶다는 목표가 있기에 내가 열심히 살았고, 방학을 하면 그 목표가 상실되니까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됐다. 나에게서 목표가 삶의 원동력이 된다. 목표가 없으면 공허해지고, 우울해진다.

현\*민

동의하지 않는다. 해당 책에서는 수감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때는 목표의 상실이 곧 삶의 의지 상실이라는 데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설정한 목표를 통해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 물론 좋겠지만,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을 향한 의지가 사라진다고 모든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없다면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을 넓게 보며 잔잔하게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봉\*경

책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목표를 상실하는 것이 곧 삶을 향한 의지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내가 놓인 상황에서 본다면 목표 상실은 곧 삶에 대한 의지 상실은 아닌 것 같다. 당장 눈앞에 놓인 목표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도 우선 목표를 찾기 위해서 혹은 그냥 살아지는

대로 살아간다. 목표는 삶을 더 탄탄하게 구성하게 도와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유\*

동의한다. 우리가 현재, 목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목표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의식주가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의 경우,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없을 만큼 각박한 삶을 살아왔다. 나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목표 없이 삶을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또한 목표가 있어야 삶에 대한 의지도 생기고 시선이 달라진다. 그저 하루하루를 일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작은 목표라도 생기면 그날을 고대하면서 더욱 힘을 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실현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옳지 않다.

**2. 이 책에서는 인간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고테라피를 제시하는데, 그 외에도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박\*우

사회적 지원과 연대감은 역경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가족, 친구, 혹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과의 연결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기 관리와 정신적 강화를 위한 방법도 중요하다. 명상, 운동, 예술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강함을 찾을 수 있다. 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내적 도전 정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역경은 그저 어려움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은 기회라는 긍정적 요소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윤\*준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삶은 고통이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를 부정하면 나에게 더 큰 허무만이 존재할 것이다.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삶을 단순화한다. 어떤 힘든 일도 익숙해지면 쉬워지고 고통도 적어진다. 단순한 삶이 주는 평온함이 필연적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은\*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상심리를 통해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더 있을까?'라고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연

사회 활동을 하는 것. 사회 활동을 하면 우울감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울감도 역경이라고 생각한다. 우울했을 때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치료제가 되었다. 수영 말고는 하는 활동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을 간다라는 작은 목표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나아졌다.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기, 밥 차려먹기라는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다 보면 우울감이 나아져 규모가 큰 사회활동도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민

이제까지 나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직면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헤쳐나갔다. 너무 큰 고난이 눈앞에 있으면 그가 모든 것을 가려 시각이 편협해지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역경에서 조금 멀어져 처음에는 집중이 되지 않더라도 취미생활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하며 땀 흘리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노력은 시야를 넓히기에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고,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노력이다.

봉\*경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로고테라피 외에도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자신의 취향과 취미가 확고한 사람들은 보다 어려운 시기를 쉽게 견디는 것 같다. 그렇기에 평소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노래 듣기, 영화 보기, 산책하기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취미나 사진 찍기, 운동하기와 같은 것을 주로 즐겨 하는 것 같다.

유\*

요즘 MZ세대들 사이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원영적 사고'라는 단어이다.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자신에게 닥친 여러 불행한 일들도 오히려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낙천적으로 사고한다는 의미이다. 각자에게 닥친 역경들도 내가 오히려 배우고 더 좋은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원영적 사고'를 가지며 살아가면 역경도 큰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 3.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는가?

박\*우

이 책을 읽으며,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데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경험과 연결 짓고자 한다. 여행, 자원봉사, 새로운 문화 경험 등을 통해 세계를 탐험하고 자아를 발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열정을 품고 있는 청년들도 많다. 환경 보호, 사회 정의, 인권 등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자아실현과 성장에 주안점을 두는 청년들도 많다. 자기 계발, 예술 창작, 스포츠 등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취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시대의 청년들

은 다양한 가치관과 목표를 품고 있지만, 모두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고자 하는 공통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준

우리는 인생에 정답은 없다 말하면서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비싼 차, 대기업 직장, 비싼 집에 사는 인생이 성공했다 말하며 인생은 그래야 하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의미들이 존재한다.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모여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런 개인적 의미, 가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은\*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 알아야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미나 행복감을 느끼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박\*연

이 시대의 청년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발전한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쉴 틈 없이 경쟁하다 보니 번아웃이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계속 위로 올라가기 위한 것들만 쫓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남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필요도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우연적으로 나에게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가진 것들을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고 일어났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사소한 감사,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멧짐으로 떠받들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춘

기 청소년같이 반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서로를 너무 챙기지 않는 사회를 타하면서도,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목적과 나의 목적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개인들을 타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와 동료들을 다독이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이기적인 사회는 개인들을 찢어놓기도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부여하는 가치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부추겨 접착제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봉\*경

나를 비롯한 이 시대의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같다. 특히나 한국은 경쟁과 비교가 심한 편인데, 현재 청년들은 이에 너무 발버둥 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으로 인하여 물질만능주의의 특성을 가지는 청년들이 많다. 하지만 물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세상에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주요한 가치로 삼는다면 이 세상이 채워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며, 개개인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유\*

사실 그저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현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가치를 세대에 따라 부여한다.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찬 우리 청년에게 그 외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삶에 무게를 가하고 싶진 않다. 무너져보고, 다쳐도 보고, 아파도 보고, 기뻐도 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봤으면 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이다. 이것조차 가치라면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청년들이여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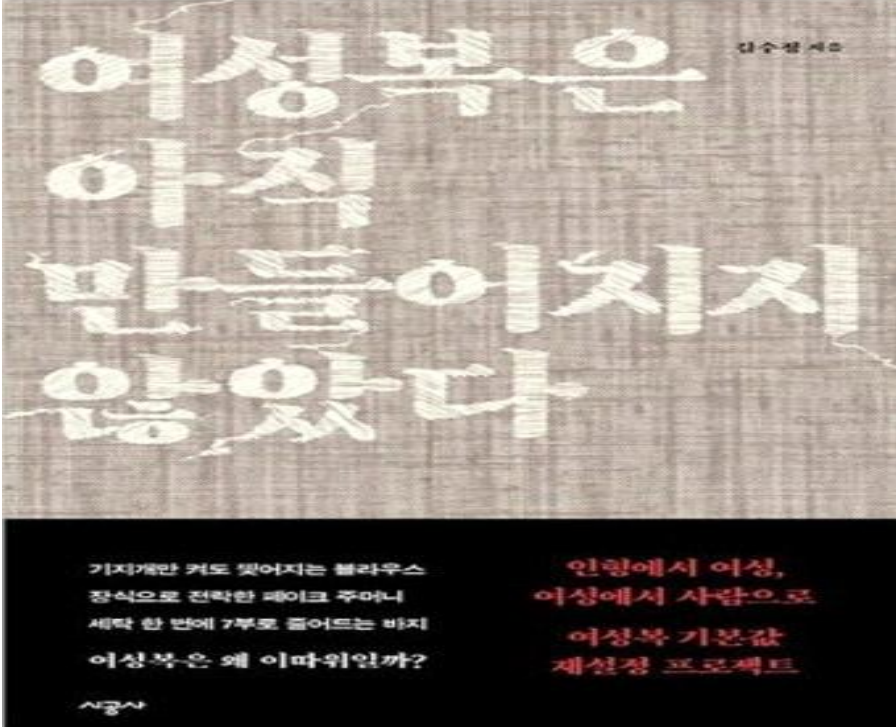
2024년 5월 1일

참가자대표 : 박\*우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오름차순 (20212223)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5월 12일(일요일) / 장 소 : 카페 탐앤탐스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박*우	학번	2022****	이름	봉*경
	학번	2021****	이름	윤*준	학번	2022****	이름	현*민
	학번	2021****	이름	은*준	학번	2023****	이름	유*
	학번	2022****	이름	박*연				
참석인원	7명							
선정도서	여성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 김수정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추천자 : 유*</p> <p>지난겨울, 추위를 막기 위해 옷 안에 입는 히트텍을 동생과 함께 산 경험</p>							

이 있다. 내가 산 여성 히트텍과는 달리 더욱 두꺼운 동생의 남성용 히트텍은 같은 이름으로 된 옷이라기엔 혼용률의 차이가 컸다. 옷의 따뜻함을 높여주는 레이온의 함유율이 남성복은 50%인 반면, 여성복은 33%뿐이었던 것이다.

위 경험 이후 알게 된 책이 바로 <여성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였다. 위 책에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여성복과 남성복의 주머니 깊이, 마감, 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차별에 대해 서술한다. 옷의 마감 만을 중요시하고 우리가 옷을 입는 원초적인 이유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여성복을 작가는 "여성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여성복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나는 청춘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옷에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 청춘은 나를 알아가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인지하는 세대이다. 그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옷이라는 매체를 통해 여성이 겪는 차별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고 연대했으면 하는 마음에 위 책을 추천하였다.

### 1. 이 책에서 언급한 SPA 브랜드의 여남옷 차이를 보고 어떤 걸 느꼈는가?

박\*우

"여성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에서 언급된 SPA 브랜드의 여남옷 차이는 현실적이고 뚜렷한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책에서 SPA 브랜드들의 여성복과 남성복을 비교하는 부분을 보면, 여성복의 경우 보통 남성복보다 디자인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복은 종종 남성복과 비교했을 때 간단하고 질이 낮은 디자인이며, 여성의 입체적인 몸매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이즈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시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SPA 브랜드의 여남옷 차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성별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를 존중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준

우선 이 정도로 여성복과 남성복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특히 책에서 언급했듯 여성 정장 상의나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옷의 맵시를 위해 안주머니가 없다는 핑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남성복과 차이가 많이 났다. 남성 자켓에 경우 안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를 못쓰게 바느질이 약간 돼있는 경우가 많다. 내가 맵시를 택할지 주머니의 기능을 택할지에 선택권이 존재한다.

은\*준

평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여자 옷과 남자 옷이 다르다는 부분이다. 남녀 옷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21세기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다. 흔히 바지에 달려있는 주머니가 여자 바지에서는 페이크 주머니라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었다. 생리학적으로 달라 오는 차이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원가 절감을 위한 차이는 없어져야 한다.

박\*연

여자 옷과 남자 옷이 다르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학생 때 여자 하복 셔츠가 길이가 많이 짧고, 팔도 짧고 허리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손을 조금만 들어도 배꼽이 보이는 정도였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남자 하복 셔츠를 사서 입고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제지를 한 적도 있었다. 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연히 하복 셔츠, 여름 생활복, 마이 모두 다 라인이 잡혀있고 길이가 짧았다. 청소년 때부터 매일 입는 교복으로 차이점을 느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재킷과 슬랙스의 페이크 주머니나 단추로 인해 차이점을 느꼈다.

현\*민

ROTC에 입단한 후 단복을 입으며 남후보생과 여후보생의 복장 차이를 많이 느꼈다. 같은 용도의 단화인데 여후보생의 구두굽이 훨씬 높고, 발볼이 필요 이상으로 좁고 앞 코가 뾰족하다. 또, 여후보생의 단복 바지에는 뒷주머니가 없다.

여성복과 남성복으로 차별을 두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예쁜 옷을 입고 싶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군인이 되고자 하는 같은 목표를

두고 입단한 집단에서조차 여후보생에게는 미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시되는 구나 싶어 속상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봉\*경

책을 읽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 옷에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남자 옷을 살 일이 없다 보니 여자 옷과 비교하였을 때, 소재나 디자인이 뛰어나고 편리할 줄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교복을 입던 학창 시절에 여자 교복은 블라우스 재질도 별로였고,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실루엣은 팔을 드는 듯한 역동적인 동작을 불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다. 또한 치마 역시 라인을 강조하여 걷는 것이 불편한 경험이 있다. 실제로 그 당시 남학생들의 셔츠를 빌려 입거나 걸쳐 입은 경험이 있고, 체육복을 더 선호 하였으나 그조차도 학교 규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 책을 읽으니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에 남성 옷은 여성 옷에 비해 훨씬 더 편리하고 내구성이 좋았으며, 드라이클리닝을 맡길 것을 권유하는 것이 옷 소재가 좋지 않아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

유\*

위 책을 읽기 전부터 모 스파 브랜드의 잠옷에서 남녀 옷 혼용률의 차이점을 보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저 착각인 줄만 알았던 내 경험이 실제로 많은 브랜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충격과 배신감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다. 특히 여성 옷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바지의 짜임새와 마감을 보고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만연하게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브랜드의 마감과 재질의 차이가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허망함을 느낀 것도 있었다.

**2. 이 책에서는 패션 산업 내에서는 같은 제품임에도 여성용이 더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핑크 택스’라고 하는데, 핑크 택스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박\*우

"핑크 택스"는 여성용 제품이 남성용 제품에 비해 더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첫째, 제조 및 마케팅 비용의

차이가 있다. 여성용 제품은 종종 더 복잡하거나 세밀한 디자인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제조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비자로서의 경향성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대와 성차별이 영향을 미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외모와 스타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용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 여성용 제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수용하는 문화를 유지시키는데 일조한다.

셋째, 시장 구조와 경쟁력이 영향을 미친다. 패션 산업에서는 여성용 제품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조사들은 여성용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핑크 택스"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반영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제품의 가격을 공정하게 책정하고, 사회적인 성차별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준

굉장히 복잡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여성복 같은 경우에 남성복보다 종류도 색상도 다양하다. 또 남성보다 옷을 자주 사고 유행에 더욱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옷의 퀄리티를 높이면 팔리지 않는 재고의 가격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는 시장 논리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가격이 높은 옷 같은 경우에 여성복은 안감이 없고 질 낮은 원단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면 남녀 차별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장논리와 남녀 차별, 관성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준

핑크 택스의 예로 미용실을 얘기할 수 있다. 남자는 미용실을 한 달에 한 번 가 머리를 손질한다. 그에 반해 여자는 몇 달에 한 번 가서 머리 손질을 받는다. 여자 머리 커트가 훨씬 노동력이 크게 안들 거 같다는 생각은 평소에 들었던 생각이다. 미용실 입장에선 같은 매출을 올리고 싶다 보니 여자 머리 커트 가격을 좀 더 높게 받는 것 같다.

박\*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미용실 가격으로 예를 들 수가 있다. 여성의 머리가 짧아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커트 비용에 두 배 정도 비싸고, 남성의 길이가 길어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커트 비용이 여성보다 저렴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고, 이런 차별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민

머리가 길거나 술이 많아서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추가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크게 놀랐다.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는 데 필요한 법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핑크 택스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핑크 택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블루 택스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보험료는 남성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남성이 위험한 일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크다는 인식하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이름 자체도 핑크는 여자, 블루는 남자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논의를 활발히 하되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봉\*경

책을 읽어보니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부터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생산 비용의 차이가 제품 가격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외모에 더 신경 쓰고 남성보다 소비에 적극적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핑크 택스 발생의 기반이 되는 것 같다. 기업은 이러한 관념을 이용하여 여성용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다.

유\*

사회에선 이미 핑크 택스라는 단어가 관용어가 된 지 오래다. 그만큼 많은 곳에서 이러한 여성차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차별 현상에 “왜?”라는 질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회는 여성에게 많은 꾸밈 노동을 강권해왔다. 이에 많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꾸밈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곤 했다. 소비가 많은 만큼 기업은 판매 가격을 남성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판매하며 여성 또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소비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 여성인 권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후 핑크 택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 3. 청년들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박\*우

"여성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를 통해서 볼 때, 청년들이 페미니즘을 인식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청년들은 페미니즘을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현실을 통해 인식한다. 젊은 세대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접하며, 자신이 겪는 일상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게 된다. 이는 패션 산업에서의 가격 차별, 디자인의 차이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둘째, 청년들은 페미니즘을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인식한다. 패션 산업 내의 불평등을 고발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을 없애고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는 페미니즘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이해한다.

셋째, 청년들은 페미니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확립한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책에서 언급된 패션 산업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확장하여 생각하게 만든다.

넷째, 청년들은 페미니즘을 지지하면서도 일부 오해나 반발을 경험하기도 한다. 페미니즘이 때로는 과격하게 느껴지거나,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페미니즘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결론적으로, "여성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를 통해 청년들은 페미니즘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준

‘코끼리를 삼킨 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인식은 그리 좋지 못하다. 성별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갈등에 중심에 페미니즘이 존재한다. 한쪽은 페미니즘을 평등의 꼭 필요한 학문으로 보기도 다른 한쪽은 갈등을 부추기는 편협한 학문으로 본다.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모자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여성복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번 책을 보며 페미니즘의 희망을 본 듯하다. 작가의 사상에 온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꼬집고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여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행동력과 통찰에 빛이 보였다. 한국 페미니즘 역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학문. 그것이 청년들이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길 바란다.

은\*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 같은 문제는 없어져야 한다. 다만 남녀가 달라서 오는 차이도 있는데 무조건 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내 주위 청년들은 얘기를 한다. 서로가 이해 가능한 선에서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줘야 하는 문제이다.

박\*연

페미니즘에 대해 여성 우월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성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혐오 차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페미니즘에 대해 얘기하려면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많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나에게 페미니스트세요?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못한다. 이때 내가 페미니스트예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더 공부할 것이다. 성평등을 이루려면 각 성끼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현\*민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굉장히 터부시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페미니즘은 학술적으로는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분류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래디컬 페미니즘을 양성 평등주의라기보다 남성차별주의 또는 여성우월주의라고 보는데, 진정한 페미니즘이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언론에서 비추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이 필요하다.

봉\*경

청춘들은 페미니즘을 담론 기피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들이 더욱 젠더 갈등을 심화 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나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지향할 것은 성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최소화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 성별이 우월한지 증명하는 것이 아닌데 한국 사회는 성별 갈라 치기가 더 익숙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페미니즘과 같은 젠더 이슈를 꺼내기 힘든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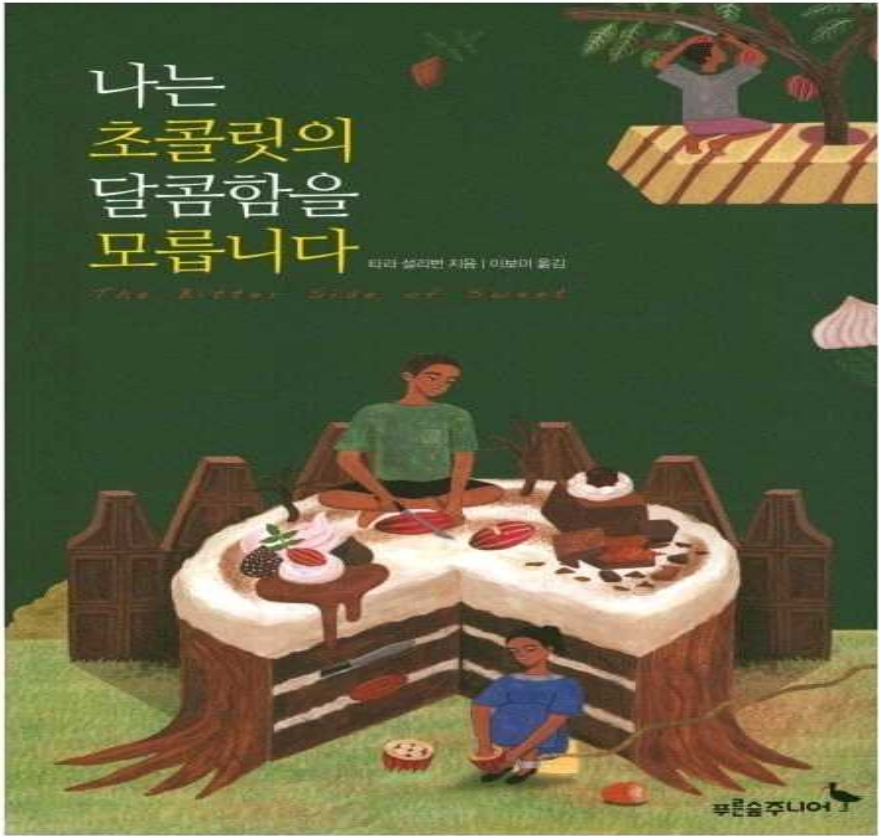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청춘은 사실 어느 세대보다도 양극화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위 책을 고르고 청춘을 키워드로 잡은 이유도 아직 각자의 신념이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는 여러 현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중에서도 페미니즘은 현대사회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일명 "래디컬 페미니즘"이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 페미니즘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도 하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주고받는 얇은 지식과 행동들이 주류화되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춘들은 페미니즘을 "사회에서 꺼리는 것, 옳지 못한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러한 사회 풍조가 바뀌어 많은 청춘들이 올바른 페미니즘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2024년 5월 12일

참가자대표 : 박\*우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오름차순 (20212223)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5월 19일(일요일) / 장 소 : 카페 탐앤탐스 스튜디오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박*우	학번	2022****	이름	봉*경
	학번	2021****	이름	윤*준	학번	2022****	이름	현*민
	학번	2021****	이름	은*준	학번	2023****	이름	유*
	학번	2022****	이름	박*연				
참석인원	7명							
선정도서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 타라 설리번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추천자 : 현*민</p>							

이 책에서는 가난과 노동 착취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삶을 보여줌과 동시에 초콜릿 산업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다룬다. 책을 읽으며 인권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 책을 추천하였다.

### 1. 아마두가 코코아 농장에서 겪은 고통을 보았을 때,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우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에서 아마두가 코코아 농장에서 겪은 고통은 우리에게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아마두와 같은 어린이들은 노동 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학대와 착취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무역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공정무역 상품은 생산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존중한다. 아마두와 같은 어린이들은 공정하지 못한 노동 조건과 불안정한 생계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공정무역 상품은 생산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산자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함으로써 인류의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다.

둘째, 공정무역 상품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한다. 아마두와 같은 어린이들이 일하는 농장에서는 종종 환경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며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촉진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도입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마두가 코코아 농장에서 겪은 고통은 우리에게 공정무역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무역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아마두와 같은 어린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준

공정무역이란 결국은 생존이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산업 구조는 한쪽의 착취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구조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착취를 당하는 쪽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윤리, 도덕, 인도주의적 차원을 배제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기업은 결국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은\*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공정한 노동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게 요즘 사회이다. 아마도 상황처럼 정한히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들 많으니, 농장 주인이 정당히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많은 사람들은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해야 한다.

박\*연

소비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상품이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 과정에 대해 집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무역을 하지 않은 상품을 계속해서 소비하다 보면 수요가 늘어나니 공급도 늘어나게 된다.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밥도 먹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생산자에게 올바른 소득이 보장되는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해야 한다.

현\*민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제대로 된 노동 환경을 위해 투자하지도 않으니 착취로 생산한 제품들은 대체로 값이 저렴한 경향이 있는데, 가격에만 치중된 소비자의 선택이 이어진다면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봉\*경

소비자들은 주로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저렴함, 가성비'를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를 지향한다. 책 속에서 주인공 아마도

는 코코아 농장에서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학대 당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공정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보장하여 노동력 악용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등 소비자의 내적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유\*

앞으로 미래에 노동자가 될 것이기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의식주를 챙기고 삶을 살아간다. 저개발국가에서부터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선진국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터부시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아마두와 같은 노동자들이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동정 어린 마음에서 공정무역을 소비하기보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과거였기 때문에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아마두가 NGO의 도움으로 구출된 장면을 보고, 국제 사회와 NGO들이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박\*우

아마두가 NGO의 도움으로 구출된 장면은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와 NGO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국제 사회와 NGO들이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국제 사회는 아동 노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을 개발하여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NGO들은 현지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아동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 사회와 NGO들은 아동 노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아마두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윤\*준

NGO와 국제기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인식 개선이다. 적극적인 구호활동과 규제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특히,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이런 착취기업에 대한 불매, 도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유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들은 정부에게 규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인식이 해결책이다.

은\*준

알려지지 못한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영리단체는 그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많은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연

먹고살기 위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가 아닌 일터로 출근하는 아이들이 많다. NGO에서 아동노동 근절 캠페인을 하며 공부를 시작한 아동들이 많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법 교육을 진행을 했다. 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봉 직업교육을 실시해 여성들도 노동을 할 수 있게 돼 수입이 늘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더욱 많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민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기업들이 아동 노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윤리적 경영이 당연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NGO들은 국제기구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로비활동을 진행하며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에 기반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봉\*경

NGO는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자와 기업에게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국제기구와 적절한 협력하

여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아마두와 같이 구호된 아이들과 노동자이 구호 이후에도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유\*

가장 이상적인 것은 NGO가 아닌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NGO가 아무리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과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본을 향해 굴러가는 NGO의 특성상 본질적인 해결을 해줄 순 없을 것이다. 결국 국가가 먼저 아동노동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마두의 국가와 같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지 복지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전으로 인해 위기인 상황이라 문제가 크다. 또한 개발도상국가들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선진국들은 아마두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권 국가에게 여러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표면적으로라도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GO가 학교 설립, 홍보와 같은 지원을 해준 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고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물건이 더욱 많은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청년들은 윤리적 소비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이 청년들의 실제 소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박\*우

오늘날의 청년들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제품의 윤리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생산 과정과 재료, 노동 조건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청년들의 실제 소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년들은 공정무역 상품을 선호하거나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비자 리뷰나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윤리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소비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정도는 다양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의 가격, 품질, 편의성, 브랜드 이미지 등과 같은 요소들도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년들이 실제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정도는 다양하며, 소비자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준

요즘 청년들은 '가치'소비를 지향한다. 기업의 어떤 가성비보다 가치, 분위기,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 풍조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들 역시 변화하고 있다. Re100 같은 친환경 정책에 참여하고 공정무역과 같은 사회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기업들 역시 등장한다. 이런 다양해진 선택지는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비를 증진하게 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게 만든다.

은\*준

공정무역 상품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현실이다.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아마두 같은 사례를 생각해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한다.

박\*연

공정무역을 하는 것이 좋지만 공정무역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알고, 아동노동근절에 대해 힘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동노동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에 대해 후원금을 내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현\*민

윤리적 소비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나조차도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소비로 이어질 때는 또다시 고민했던 경험이



꽤 많다. 모든 청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윤리적 소비의 실천으로써 각자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소비 행동이 나타나 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봉\*경

사람들의 삶이 이전에 비해 나아져,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 같다. 특히 청년들은 학창 시절부터 공정무역 개념을 학습하고 더욱 익숙해져 있다. 실제로 청년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소비자를 의식하여 윤리적인 과정을 거쳐 상품을 생산하고, 비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홍보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유\*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이 있는 청년들은 자본이 별로 없다. '가난한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년들은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자본도 빠듯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는 청년들이 윤리적 소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심비우스 북클럽에서 토론을 한 이후 이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개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남을 희생하고 아프게 하는 소비보단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다들 소비를 하고 이를 자랑스럽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현재 청년들은 과거의 세대와 다르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먼 나라의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연대하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

2024년 5월 19일

참가자대표 : 박\*우